검찰 PROSECUTION SERVICE	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	보 도 자 료
	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성원 전화 051-780-4302/ 팩스 051-780-4320	2018. 10. 15.(월) 자료문의 : 집행과 전화번호 : 051-780-4580 주책임자 : 집행과장 남우채

제 목	급증하는 자유형미집행자 철저 검거 -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-

- **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(지청장 이철희)**은, 불구속 및 궐석재판 증가 등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여 2018. 9.까지 모두 38명이 발생하였으나 끈질긴 추적 등 노력으로 2018. 1.~9.까지 총 33명을 검거함
- 우리 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집행자를 검거하여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
1 검거기간 설정 배경 및 성과

- 불구속 및 궐석재판 증가 등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는데 그 중 시효가 지나 죄 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발생하면 적정한 형벌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.
- 2018년 3분기(7월~9월)를 자유형 미집행자 집중 검거기간으로 설정하여 15명을 검거하는 등 2018. 1.~ 9.까지 자유형 미집행자 총 33명을 검거함.

※ **'자유형 미집행자'**는 징역,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나머지 형을 집행해야하는 사람을 의미함.

2 대표적 검거사례

□ A○○(남, 42세), 침대 메트리스 홈 속에 숨어 검거를 피함

- 2014. 2. 12.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고, 여러 사기사건으로 경찰에서도 현상금이 걸린 자유형 미집행자임.
- 미집행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주위에서 동태를 살피던 중 검거.
- 미집행자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들의 아파트 수색에도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 내부 홈에 들어가 숨어 체포를 피했다고 진술.

□ B○○(남, 57세), 카톡 배경사진을 통한 검거

- 2018. 7. 23.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형의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자유형 미집행자임
- 미집행자의 휴대전화 최종 사용지가 산업단지 인근임을 확인하고, 카톡 배경화면에 있는 사진을 단서로 미집행자가 근무하는 공장을 탐문하여 카톡 배경화면과 동일한 공장을 찾아 미집행자를 검거.

3 향후 계획

-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.